

오륙도 글밭



전 상수

부산여성신문 편집주간
전 남구청장

새가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고 있다. 낙동강 하구에는 아름다운 겨울 철새 고니가 발길을 끊었다. 도심이나 아파트촌에서 참새가 보이지 않게 된 것도 벌써 오래전이다. 참새는 인간과 가장 가까이 살아 온 텃새인데도 참새잡이아 관심을 가질 마음의 여유도 없다.

이제 겨울 산길에서도 두어 마리 '까악 까악' 소리를 서로 주고받는 까마귀가 보일 뿐 다른 새소리는 들을 수가 없다. 저녁 무렵이면 무리지어 오솔길에 내려 앉

아 지저귀던 까치가 올해도 내내 보이지 않았다. 숲 짙은 계곡에서 여름 한 때 아름다운 소리를 내던 이름 모를 그 새마저 2년 전쯤부터 종적을 감추었다.

늦은 봄 이기대 산등성에 빨갛게 익어가는 산딸기나 늦가을 도토리 열매가 떨어지기 무섭게 다 흩어가는 무지한 사람들 때문에 새나 짐승이 먹을 양식은 없어진다. 재선충이 번져 숲 밑도가 느슨해지고 등산꾼들 소리가 시끄러워 짐승들이 안심하고 깃들 곳이 없는 것도 그 원인이다. 그래도 맑은 바람소리, 카랑한 하늘, 봄을 기다리는 소나무 오리나무 사이로 푸른 바다가 보여 삭막하지만은 않다.

다행인 것은 용호동 이기대 부근 공기가 좋은 주택 인근이나 낮은 건물 옆에는 아직도 참새들이 살고 있는 것이다. 용호2동 농협하나로 마트 주차장 서너 그루 호박나무에 참새들이 모이지만 먹을 것은 마트 안에 있을 뿐 시멘트바닥에는 아무것도 떨어지지 않는다.

마트 맞은편 합천국밥집 전병철 사장은

그런 참새가 너무 측은했다. 모이를 주기 시작하자 벌써 7년째. 미처 모이를 못주면 시도 때도 없이 손님들이 있어도 참새가 가게 안으로 날아 들 때도 있다.

천사장이 가게 앞에 모이통을 들고 나오면 기다렸다는 듯 순식간에 오입어 마리가 날아들어 모이를 주워먹기 바쁘다. '사라진 참새를 여기서 보호 하고 있구나' 순간 너무나 흐뭇했다. 참새 모이는 하루에 서너 번. 언제부터인지 이웃사람들도 쌀이 약간만 상하면 들고 온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참새를 좋아하게 된 것이다.

동아대 명예교수인 신진 시인이 '보성문화'지에 쓴 글이 생각난다. 오래전 신 시인은 강서구 낙동강 가까운 쪽으로 집을 옮겼다. 집을 수리하면서 집 앞뜰 수도 옆에 작은 연못을 만들었다. 나무가 제 자리를 잡고 수초가 어울렸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침, 저녁 가리지 않고 온갖 새들이 날아와 물을 먹고 간다. 작은 연못 하나가 이렇게 다른 생명체에게 필요한 물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신 시인은 흐뭇했다. 어



국밥집 앞에 모여든 참새떼.

느 건축가는 '새가 오는 집은 좋은 집'이라고 했는데 신 시인의 집은 틀림없이 좋은 집일 것 같다.

미국 TV방송 CNN은 '자연은 사람이 필요 하지 않다. 사람은 자연이 필요 하다.'고 하루에도 여러 번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캠페인 문구를 내보내고 있다. 사람은 자연이 필요하다는 말이 오히려 신성하게 들린다.

지구는 인간이 혼자만 쓰는 것이 아니다. 많은 동식물이 함께 서식하고 자라는

곳이다. 세계 야생동물기금은 2018년도 보고서에 인간의 자연 파괴에 대한 빨간 신호를 송출 했다. 인간 때문에 45년 전보다 야생 동물의 개체수가 60% 사라졌고 '깨끗한 물'에서 서식하는 동물의 경우 1960년과 비교하면 80%가 줄었다고 한다. 열대우림도 빠른 속도로 파괴되어 가고 있다고 발표했다.

환경운동가에게 먹고 사는 공장 짓는 것보다 철새가 뭐 중요하냐며 나무라는 사람들도 있다. 새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새가 살 수 없는 곳에 인간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무리지어 비상하는 모습 그 자체만으로도 새는 아득하고 신비하다.

우리 주변의 생태계 변화는 서서히 인간이 극복하기 어려운 재앙으로 몰아가고 있다. 새해 봄이 되면 우리 아파트 마당 수돗가에 새가 먹고 갈 수 있게 작은 돌 물통 하나 사다 놓고 싶다. 국밥집 전병철 사장, 뜰에 작은 연못을 만든 신진 시인처럼 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를 기대해 본다.



<275>



■오륙도문학 신인상



금낭화, 비단주머니꽃

박진선

그대를 위해 흘렸던 피
그대는 본 적이 있는가그대를 향해 흘려넘치던
그의 눈물 그리고 사랑그대를 너무나 사랑했던 그의 마음
그대는 진정 느껴본 적 있는가어여쁜 비단주머니에 고이 담아
귀한 당신께 전해 드릴까

울지 말라는 말은 울어도 괜찮다는 말이다

이서이

울지 마라
넌지시 건넌 한 마디
얼갈 쏘아지는 눈물에
울지 말라는 그 말은 사실
울어도 괜찮다는 말이다울지 마라
말 대신 두 뺨으로 전하는 진심
가슴팍을 축축이 적시는 느낌도
하리를 짝 안은 두 손도
하나 하나 다 위로받을 수 있기를울지 마라
무심히 던진 한 마디
코를 팽 뚫며 노려보는 눈빛에
눈가를 닦아주며
그 눈이 그리 밍지는 않다울지 마라
말하면서도 함께 흘리는 눈물이
마음 한 권 힘이 되기를...
울지 말라는 그 말은 사실
울어도 괜찮다는 말이다

그렇게

강서윤

떨어지는 단풍잎을 보며
갈맷을보다 새로운 시작을 보고바다가 요동하고
하늘이 순환하듯철새가 떠나는 소리에
헤어짐보다 재회의 희망을 듣고그렇게 자연스럽게
살아가고파꽃향기가 희미해질 때
슬픔보다는 새 사랑의 향기를 맡는까마만 호수가
내게는 경이그런 사람이
되고파칠족 같은 어둠이
내게는 황홀계절이 지나가며
꽃들이 피고 지듯어둠을 헤쳐차다오
행복한 일상

무료 영화상영

*영화관람은 선착순 무료 입장

	상영일자	상영영화	상영정보	상영시간 및 장소
대동굴문화센터	12.28.(금) 18:00	남자가 사랑할 때	15세, 영화	대동굴문화센터 2층 공연장 음식을 반입금지
남구도서관	2019. 1. 6.	아이스에이지 4	전체, 애니, 더빙	매주 일 오후2시
	2019. 1. 13.	보스베이비	전체, 애니, 더빙	남구도서관
	2019. 1. 20.	스누피: 더 피너츠 무비	전체, 애니, 더빙	2층 시청각실
	2019. 1. 27.	라이언	전체, 자막	☎607-6575

독자의 소리

독자의 소리란은 독자 여러분을 위한 공간입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부산남구신문편집실 ☎ 607-4065, 4075, FAX 607-4374, 1225honey@korea.kr

■제12회 오륙도문학상 대상

가 자 미



김정화

납작 었드렸다. 오색한 갈바다 좌편이면 어떤가. 널조각 자리가 왕후금절도 부럽지 않다. 갑갑한 얼음 창고 속에 쭈그리지 않아도 되고, 덕장에 걸리는 고행길에 오르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생이란 때로는 원치 않은 곳까지 흐르기도 한다. 내가 태평양 넓은 물에서 도심 변두리 골목시가지까지 줄 상상이라도 했겠는가.

한 뼉 길이의 손바닥만 한 나를 두고 사람들은 넓적[광어]와 견주기를 즐긴다. 눈의 방향으로 이름 내기를 하거나 모자란 생김새로 농을 친다. 눈이 오른쪽으로 쏠린 가자미와 왼편으로 돌린 광어를 구분하고자 좌편우도라는 대중어까지 만들어낸다. 그러나 단박에 우리를 호령하며 반색하는 이는 드물다. 뱃살에 코를 등등대거나 눈알을 꼭꼭 눌러가며 요리조리 가웃거리는 데 간택을 기다리노라면 심장이 바짝 마를 지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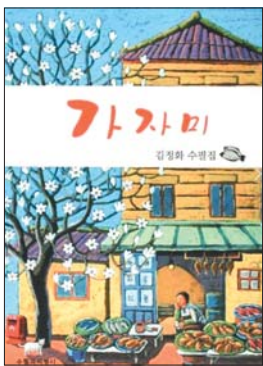
나는 도미 같은 귀족도 아니고 등삼이 탄탄한 고등어처럼 풍채 좋은 호남자도 아니며, 뽕뽕한 몸매의 농어처럼 어류계의 팔등신도 아니다. 잡지나 대구처럼 어물전 인기어는 더더욱 아니다. 아귀나 물메기의 면상에 견주어도 어금비금하다. 하지만 어력만은 신화 못지 않게 진귀하다. 가자미와 물고기를 접어라고 일컫는데 가자미가 많이난다 하여 한반도를 점역(鰐城)이라 불린 적도 있다. 동의보감에는 허(虛)를 보하고 동기(同氣)하는 음식으로 이름을 올렸으며, 포츠담 회담 만찬 때는 영국의 처칠 나리가 가자미튀김을 메인코스로 선정했을 만큼 황금기도 있었다.

한때 '비목어(比目魚)'로도 불렸다. 한 눈이 다른 눈을 쫓아간 고기라는 뜻이 될 것이다. 비(比)는 더불어 있다는 말이다. 옛사람들은 한쪽 면이 없는 물고기를 반면어라 했는데 납지와 가자미 역시 원래 한 마리라고 여겼다. 그래서인지 우가자미의 반대편인 좌납지를 보면 저절로 내 몸이 기울어진다. 비목동행(比目同行)이란 말을 생각해

보라. 한쪽 면만 가진 두 몸을 붙여서 한품처럼 다니는 것을, 이 얼마나 가깝하고 정성스러운 일인가. 헤어져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운명을 함께하는 반쪽을 그대는 가져 보았는가.

우리를 가자미 혹은 납새미라고 부른다. 모양새에 따라 물가자미, 잠가자미, 줄가자미로도 호명되지만 도답어라는 뜻의 도다리도 귀한 별칭이다. 시골에서 부르는 까재미나 섬마을에서 지칭하는 딱피어 또한 나의 애칭이다. 무엇보다 내가 가장 마음이 가는 이름은 자산어보에 등재된 '소점'이다. 정약전 선생이야 '소점(小鱗)'이라 명명했지만 나는 나비 집 자를 붙여 '소점(小蝶)'이라 고쳐 읽고 싶다. 물고기의 작은 나비. 이 얼마나 낭만적인 이름인가.

가자미를 외눈박이로 여기지 않는 것은 해도 다행이다. 우리 눈이 처음부터 삐딱하게 한쪽으로 돌린 것은 아니다. 부화되었을 때는 여는 물고기와 마찬가지로 양측에 있었지만 위기 때마다 머리를 수그리는 습성이 배어 왼눈이 점차 오른쪽으로 옮겨졌다. 한쪽에만 눈이 붙었으니 평생을 반쪽만 보며 살아왔다고 생각하면 오해다. 사방을 아우를 수 있는 시야가 아니라도 몸을 돌려 다른 쪽을 보고도 부단히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가자미 눈이라는 말로써 남에게 심통이나 부리는 교악한 물고기로 착각하면 곤란하다. 가자미는 태생적부터 온유한 심성을 지녔다. 물고기 중에



부산 남구문화원 노래교실 회원모집

○개 강 : 2019년1월10일(목)
○강 사 : 정혜원 (웃음치료사)
○일 시 : 매주 목 오후2시(90분 수업)
○장 소 : 부산남구청 1층 대강당
○수 강 료 : 3개월 30,000원 (교재비 포함)
○접수방법 : 전화접수 후 개강일 현장접수

○모집기간 : 2018년 12월 24일부터
○문 의 : 부산남구문화원 051)624-1333
○1월10일 개강일 초대가수 : 이정웅(탈런트), 더나은(세월강)

※ 개강일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우리지역 일자리 알리판

<2018. 12. 18. 기준>

회사명	근무지	모집직종	모집인원	모집기간	임금조건	연락처
관세법인 드림	문현동	관세사무원	1명	18. 12. 18. ~ 채용시	연봉 2,400만원 ~ 2,600만원	051-791-0077
해피실버타운	용호동	사회복지사	1명	18. 12. 18. ~ 채용시	월급 174만원 이상	051-621-5003
맛드락	용호동	식품분야 단순종사원	1명	18. 12. 18. ~ 채용시	월급 130만원	051-991-2324
㈜에스에이치 더블유	문현동	영업원	1명	18. 12. 18. ~ 채용시	연봉 2,200만원 ~ 2,400만원	051-861-5000
㈜지오테크윙크	대연동	소방물 택배준비원	1명	18. 12. 17. ~ 12. 31	월급 158만원 이상	051-633-5514
㈜트렌스 코스모스코리아 (이마트)	문현동	대형마트판매원	1명	18. 12. 17. ~ 12. 31.	월급 170만원 이상	053-601-5342
힐링케어	용호동	건물청소원	3명 (여)	18. 12. 17. ~ 채용시	월급 160만원 ~ 200만원	010-2782-2722
㈜서원로직스	김만동	도로문송사무원 (배차사무)	1명	18. 12. 17. ~ 채용시	월급 200만원 이상	051-624-3340
해피실버타운	용호동	간호조무사 (간호사)	1명	18. 12. 18. ~ 채용시	월급 163만원 이상 (180 ~ 200만원)	051-621-5003
외로빈인 은경의료재단 (인정대원 요양병원)	대연동	영양사	1명	18. 12. 18. ~ 채용시	연봉 2,000만원 이상	051-774-1026

※ 대한민국 모든 일자리 정보(worknet)와 연계

※ 남구 취업정보센터 ☎607-4347~8 Fax. 607-4349

산하가 물 따라

산행을 떠나요



<2019. 1.>

구분	산악회	산행일자(요일)	산행장소	연락처
대연동	대삼산악회	1/13(일)	덕유산 황적봉	010-6252-5641
	약천산악회	1/16(수)	김천 출렁다리	010-4655-4370
	남구자유산악회	1/6(일)	대원사 계곡트레킹	010-5576-8142
용호동	용신산악회	1/3(목)	괴산 삼악이옛길	010-4657-7051
	청산산악회	1/6(일)	대구 청룡산	010-8008-2087
	해월산악회	1/20(일)	거창 민재봉	010-3560-3409
	여남산악회	1/13(일)	충남 북덕유산	010-3855-6669
	용호산악회	1/27(일)	영동 월류봉	010-6286-8525
문현동	여명산악회	1/6(일)	울진 백암온천	010-2582-4254
	청심산악회	1/27(일)	괴산 신선봉	010-2736-7553
	산오름산악회	1/6(일)	울진 덕구온천	010-7223-2277
용당동	용마산악회	1/13(일)	무주 적상산	010-2692-1170
문현동	월부리산악회	1/20(일)	청령 영축산	010-4564-7769
	산누리산악회	1/6(일)	백화산 둘레길	010-4035-3432

※ 산행일정은 산악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산남구신문

1996년 1월 1일 창간

발행처 부산광역시 남구 / 편집주간 김 성 한

48452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남구청 대표전화(051)607-4000 편집실(051)607-4065, 4075 / FAX(051)607-4374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http://www.bsnangju.go.kr

인쇄처 부산일보사 / 월간 <비매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